

소상공인 사업실패경험 속성이 재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형수*

비즈엠테크 대표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국 문 요 약

우리나라 기업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27.5%)은 OECD 평균 생존율(43.9%)보다 낮으며 최근 5년간('11~'15년) 연평균 창업은 81만개, 폐업은 70만개로 다산다사(多産多死) 특징 보유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인한 폐업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경험이 학습효과와 자산으로 승화하여 재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사업실패자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재창업 의지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사업실패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첫째, 사업실패경험 속성중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손실이 크다면 재창업의지는 낮아지게 된다. 둘째,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정서적지지는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창업지원은 이들이 경험한 비재무적 손실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서적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안들이 고안 되어야 하고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는 것이 제도전 시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1. 서론

우리나라 기업의 최근 5년간('12~'16년) 연평균 폐업은 70만개, 창업은 81만개로 다산다사(多産多死) 특징 보유하고 있다.('16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통계청) 또한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은 27.5%로 OECD 주요국의 5년 생존율('14년) : 영국 37.5%, 독일 41.0%, 프랑스 52.7%, 스웨덴 62.6%뿐만 아니라 17개국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 차지하고 있다.(IBK경제연구소, 2017)

따라서 5년 생존율이 낮다는 것은 사업실패자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 실패는 패가망신(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까지 망함) 이라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 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

고 국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말 기준 재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로 전체 창업기업의 생존율 27.5% 비해 약 2배 이상 높으나 폐업기업의 대표이사가 재창업하는 제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IBK경제연구소, 2017)

창업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기업인들은 평균 2.8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창업인들은 1.3회의 실패 경험(IBK경제연구소, 2017) 보유하고 해외에서는 실패 경험을 성공의 밑거름, 즉 자산으로 여기는 반면 국내에서는 창업 시 한 번 실패하면 낙오자로 여기는 인식이 크다.

따라서 재창업 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보다 높은 데도 불구하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불리한 재창업 환경으로 인해 국내 제도전비율은 미비하다.

* 비즈엠테크 대표, ddung619@naver.com

**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부교수, yun88@kookmin.ac.kr

우리나라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비록 그 사업규모가 작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 및 종사자 수의 비중이 높다. 2014년 현재 사업체 수가 306만개에 이르러 전체 사업체 수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에서는 소상공인이 605만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폐업 사업자 91만개로 폐업사업자의 대부분인 소상공인의 사업실패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17년 국세통감, 국세청)

소상공인은 고용을 창출·유지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산층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어 사업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가 중요하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패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실패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를 꺼리고 실패한 기업인들도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기 꺼리기 때문에 실패경험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쉽지 않다(McGrath, 1999; politis & Gabrielsson, 2009; Shepherd et al, 2009).

연구자도 긍정적 이미지가 주는 장점도 있는 성공요인이나 사례에 대해 연구하려고 하지 실패에 대한 연구는 당연히 멀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보다 학문적 정책적인 접근이 있어야 재도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를 높일수 있고 실패에 대한 끝없는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패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정적 이미지에서 학습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 얼마든지 재기가능하고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김형호,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의 사업실패경험이 학습효과와 자산으로 승화하여 재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사업실패시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 및 비재무적 손실에 속성에 따른 사업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재창업에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주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재창업에 대한 관용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사업실패경험 속성

장수덕(2003)은 Watson and Everett(1996)의 사업실패개념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재정의 하고 있는데, 국내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첫째, 사업의 중단(discontinuance of business)이다. 여기에는 소유구조가 바뀔으로써 그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포함된다.(김형호, 2016 재인용)

둘째, 공식적 파산(formal bankruptcy)이다. 여기에는 채무관계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도, 채무자들에 의한 경매처분, 혹은 법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정 관리 같은 것이 포함된다.(김형호, 2016 재인용)

셋째,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한 사업의 처분(dispose to prevent further losses)이다.(김형호, 2016 재인용)

넷째, 지속적인 사업운영의 실패(failing to make a go of it)이다. 이는 후속제품이 출시되지 않거나 제품혁신에 실패하여 수익창출이 어려운 경우 혹은 시장에서 제품판매의 실패와 같은 경우는 실패로 정의하는 것이다.(김형호, 2016 재인용)

선행연구는 사업실패요인(신중경, 하규수, 2013; 이장우, 이성훈, 2003; 한정화, 2011), 사업실패 비용(하규수, 2009), 사업실패의 영향(박명수, 2013; 오상훈, 하규수, 2013; 하규수, 2012), 재창업가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창업실패과정과 대처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창가들이 창업실패를 극복하고 창업에 성공하는 효율적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백재화, 2014), 경영자자질, 기업가정신, 비즈니스적 환경의 비해 조직내부 결속, 소통력 요인이 실패부담감과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속성임을 입증연구(송경숙, 2015)와 정부의 재창업지원제도 중 교육컨설팅은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고 자금지원은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이있는 경우, 재창업의도에 조절효과가 있음을 입증한(김형호, 2016) 연구가 있다.

2.2. 사회적 지지

House(1981)는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는 객관적 사회적지지와 개인이 필요할 때 주위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말하는 지각된 사회적지지로 구분하고 있다.

Betz(1989)는 사회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통칭하면서 진로와 관련해서는 개인이 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적, 물질 자원을 도와주는 것 의미한다고 기술함

House(1981)는 사회적지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정서적 지지는 새로운 벤처 창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구조적 차원의 하나로 간주되며, 그것은 창업가가 인지하는 동정, 관심, 사랑, 신뢰 등을 의미하고 물질적 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혹은 금전이나 물건을 제공해주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보적 지지는 창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정보의 제공을 말한다. 또한 기업, 제품 및 시장에 대한 정보 등 사회가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적 지지는 정보의 흐름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이 어려운 일을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지지원으로 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평가적지지의 한 예이다(김재호, 2013)

2.3.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고 그 외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4. 재창업의지

Crant(1996)에 따르면 창업의지는 예비 창업가가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창업행위에 대한 의도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창업의지는 창업실패 경험자가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창업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고 창업 초기 핵심적인 역할이 창업의지이다(Bird, 1988).

창업의지는 기업가 정신을 근본으로 새로운 조직설립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박시사 & 강성일,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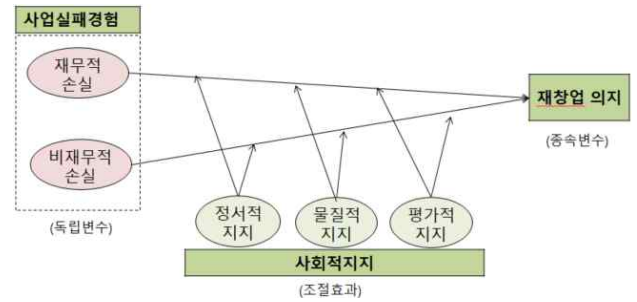
창업의지는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특성과 지속적인 학습지향성,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역량에 관한 영향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박세연, 2016)

자금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인프라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은 창업의지를 가진 예비창업자가 창업이행을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더욱 확고하고 창업지원사업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상

이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노현철, 2018)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3.2 연구가설

독립변수인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사업실패경험은 재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은 재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은 재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사회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 2-1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 2-2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 2-3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 중 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 2-4 사회적지지 중 정서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것이다.

2-5 사회적지지 중 물질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2-6 사회적지지 중 평가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 중 비재무적 손실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사업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지인과 관계기관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 오프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은 2018년 6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했으며 설문 회수는 창업실패경험 없음 및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하고 총 208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1.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성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베리맥스(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고유값(Eigen Value) 1.0이상,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신뢰성 분석에서는 내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재무적 손실 .838, 비재무적 손실 .871, 정서적 지지 .955, 물질적 지지 .880, 평가적 지지 .914, 재창업 의지 .948로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측정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업실패에 따른 두가지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 속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조절 회귀분석(Moder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계수를(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한 평균중심화 방법을 적용하여 다중공선성을 해결하였다.

IV. 가설검증 결과

<표 1> 가설검증 결과

가설	경로	결과
[H1]	사업실패경험은 재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재무적손실 → 재창업의지	기각
H1-2	비재무적손실 → 재창업의지	채택
[H2]	사회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 사이에 조절효과를 미칠 것이다.	
H2-1	재무적손실 → 재창업의지 : 정서적지지 조절	채택
H2-2	재무적손실 → 재창업의지 : 물질적지지 조절	채택
H2-3	재무적손실 → 재창업의지 : 평가적지지 조절	기각
H2-4	비재무적손실→재창업의지 : 정서적지지 조절	기각
H2-5	비재무적손실→재창업의지 : 물질적지지 조절	채택
H2-6	비재무적손실→재창업의지 : 평가적지지 조절	기각

사업실패경험 속성중 비재무적손실($\beta = .491, t = 7.710, p < .005$)은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손실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실패경험중 비재무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호작용항에서 정서적지지는 재창업의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와 평가적지지는 사업실패경험과 재창업의지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H1-2, H2-4는 채택되었고 H1-1, H2-2, H2-3, H2-5, H2-6은 기각되었다.

V. 결론

사업실패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연구가 그동안 활발하지 못하였고 실패 기업인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하지 못해 대다수 연구자들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충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실패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실패경험이 자산으로 축적되어 재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사회에서 사업실패자에 대한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지지의 사회적지지가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비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창업의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재무적 손실이 크다면 재창업의지는 낮아지게 된다. 비재무적 손실은 기업인의 명예실추, 기업운영의 기회박탈, 사회적인 소외 등 실패기업인들이 경험한 손실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재창업의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창업의지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사업실패로 재무적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토록 하는 것이 재도전 시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떠한 현명한 전략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 깊어야 할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대처 할 수 있어야 재기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중 정서적지지는 비재무적 손실 발생한 경우에 재창업의지에 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지지는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누군가는 나에게 건강과 행복에 대한 걱정, 어려움에 대한 도움, 지칠 때 도움 및 좌절할 때 위로 등이다.

따라서 재창업지원은 이들이 경험한 비재무적 손실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정서적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안들이 고안 되어야 하다.

넷째, 조절변수인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는 창업 시 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줌, 어려움에 대한 경제적 도움 및 어려움 직면에 시간적, 재능기부 제공이다. 현실적으로 사업실패자에게 물질적지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된다. 평가적지지는 창업 시 내 사업에 기대치를 평가, 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평가, 문제해결에 객관적인 평가 및 나의 행동이 사업적 원칙에 맞는지 평가의 제공이다. 이는 창업 후의 발생할 사항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에 정부의 재창업지원에서는 고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필요하나 한번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나 사회낙오자로 찍혀 회복할 수 없는 사회 환경에서는 실패한 창업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용인과 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는 실패의 고통 속에서 평생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결국, 재창업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생동감 있는 경제 활성화와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사업실패자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재창업의지가 중요하다. 사업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재기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되는 메카니즘을 규명하여 그들의 재기를 도울 재창업 지원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방향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영욱(201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

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김나라(2017).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제도 설문조사 결과*, IBK경제연구소, URL:<http://research.ibk.co.kr/research/board/corporate/download/251088/1>
 김재형(2016). *사업실패에 대한 평가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실패두려움과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김재호(2013). *사회적창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적 프로세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형호(2016). *사업실패경험이 재창업의도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김형호·윤현덕(2015).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 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벤처창업 연구*, 10(6), 235-252.
 노경섭(2016). *재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SPSS & AMOS 21*, 한빛아카데미
 노현(2018). *예비창업가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박세연(2016).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이 재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성호(2017). *창업환경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경제적실패 부담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지원제도의 조절변수와 기업가정신의 매개변수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성희(2016). *소상공인의 성격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업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자본 확보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백재화(2014). *재창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서명길(2018). *소상공인의 창업가특성, 창업준비도가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경영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송경숙(2015). *소상공인 경영자의 창업환경이 실패부담감과 창업실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2), 393-407.
 송지준(2017).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21세기사, 59-204.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영미·하규수(2018). *시니어의 경험, 자금조달역량, 마케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 161-166
 전계식(2017). *창업자의 특성이 마케팅 역량과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정대용·김재형(2015). *사업실패에 대한 평가와 창업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 연구*, (19)5, 277-301

- 백재화(2014). *재창업가의 창업실패와 대처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최민정(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조절초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Ajzen, I.(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rocesses*, 50, 179-21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